

청소년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설명적 문헌고찰

박 경 옥* · 이 경 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보건교육과*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보건교육학과**)

흡연시작 연령은 금연 성공률과 건강상의 피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 세계적으로 흡연하고 있는 성인들의 80%가 20세 미만에 흡연을 시작한 것을 미루어볼 때,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습관은 금연의 지속가능성을 급격히 저하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CDC, 1998). 흡연의 건강상의 피해에 있어서도, 15세 이하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김일순, 2000), 청소년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노력은 향후 공중보건학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흡연중재(흡연예방과 금연) 연구의 양상을 분석하고, 청소년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들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중재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10년간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청소년 대상의 흡연중재 효과에 관한 논문 33편을 중심으로 고찰을 통해 설명적(descriptive) 문헌분석을 시도하였다. 일차적으로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학술지 논문 검색엔진을 통하여 ‘흡연’, ‘금연’, ‘중재’, ‘프로그램’, ‘교육’, ‘효과’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흡연예방이나 금연 프로그램 및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논문들을 다시 그 국문초록 고찰을 통하여 연구대상이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인 논문들로 제한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 선정된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주요한 특성 및 평가요인에 따라 그 분포를 구하는 설명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997년부터 청소년 대상의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30%와 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반별로 또는 흡연특성별로 실시한 연구가 약 48%로 가장 많았고 남학생들 대상으로만 실시한 연구가 그 다음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여학

생들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 미만으로 적었다.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이 시기를 중심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설계에 따라 살펴볼 때, 실험설계모형을 가진 연구는 없었고 64% 정도가 유사실험설계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나머지가 비실험설계의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비실험설계모형을 가진 연구들에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우는 80%로 유사실험설계모형을 가진 연구들(72%)보다 그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연구설계 수준이 낮을수록 연구의 결과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들의 논의와 비슷한 결과였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간은 5일 이하가 60% 이상으로 단기교육이 주류를 이루었고 평가모형으로는 사후조사를 기간 별로 2회 이상 실시한 연구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전-사후 직후 2회 평가모형으로 75%를 차지하였다.

흡연행동은 현대사회에서 핵심적인 건강위험행동의 하나로서 선진국들에서는 흡연 및 금연행동 연구에 건강행태 이론이나 모델 적용이 매우 활발한데 반해, 본 연구의 결과로는 약 70%의 중재연구들이 이론이나 모델의 틀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론이나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는 개인의 인지적 차원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 차원에서 건강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이나 모델의 적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평가요인은 주로 흡연에 대한 인지, 태도, 행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흡연과 관련된 생리학적 변화를 측정하여 금연수준이나 신체상태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부분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 흡연의지, 금연시도율, 금연성공률 등 인지 및 행태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고 흡연중재와 함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중재 교육프로그램은 연구설계와 이론적인 근거마련에서 보완할 여지가 많으며 가장 많은 수 연구들이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앞으로 흡연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수준이 더 낮아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육실시 기간이 1주일 미만이 많아서 평가요인들도 단편적인 경향이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경제사회적인 차원의 다각적인 효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 흡연개시에 관한 감시체계 확립 및 장기적인 교육중재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충되어야 하겠다.